

국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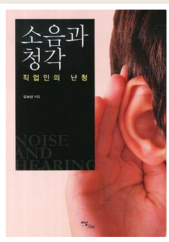
제6회 ICOH 작업환경 및 심혈관질환
국제학술대회 참가

박정선 연구원장, 김영선 연구위원, 윤영식 과장, 김수진 과장 등 4명은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산업보건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단체인 ICOH(국제산업보건 위원회) 심혈관 질환 분과 주관에 의해 열린 『제6회 ICOH 작업환경 및 심혈관질환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본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한국 근로자의 심혈관 질환, 작업강도, 작업시간 간의 연관분석’, ‘한국 근로자의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완충 작업조건’, ‘비정규작업이 작업관련성 증상에 미치는 영향’ 및 ‘근로 환경조사를 기반으로 한 한국근로자의 작업관련성 증상 분류’ 등 그 간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박정선 연구원장은 이 학술대회에서 카라섹 등 저명한 학자들과 함께 국제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소식·동정

김규상 연구위원 『소음과 청각』 출판



직업건강연구센터 김규상 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지난 2월 소음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음과 청각』을 출판했다. 본 서에서는 직업성 난청의 주요원인인 작업환경에서의 소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음환경과 그로 인한 청력 영향과 이명, 청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까지 살펴보고 있다.

소식·동정

연구위원 채용

- 소 속 : 직업건강연구센터
- 성 명 : 이상길
- 임용일 : 2013.3.4(월)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채용

- 소 속 : 직업건강연구센터
- 성 명 : 박철웅
- 임용일 : 2013.3.2(토)



인턴 채용

- 소 속 : 안전인증센터
- 성 명 : 강경희
- 채용기간 : 2013.3.11~10.31



- 소 속 : 재해통계분석팀
- 성 명 : 조국현
- 채용기간 : 2013.3.11~10.31



고객만족 아이디어 및 슬로건 제안 시상

고객만족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	인증팀 박임규 과장 (신규 사업장 예비심사 연계 기술지원)	
우수상	인증팀 박지훈 과장 (우편발송시 고객만족 문구 삽입)	

고객만족 슬로건 부문

최우수상	송문기 대리 "고객님의 '매우만족'이 우리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우수상	인증팀 박철희 과장 "고객님께 '매우만족'으로 인증받겠습니다."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뉴스레터 | 2013. 04. No. 6 |

OSHRI Newsletter / No.6 April 2013



연구원장 메시지

GO

ILO협약 제187호와 '예방문화(prevention culture)'



지난해 가을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서부터 얼마 전 여수 대림산업(주) 사일로 폭발사고에 이르기까지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망재해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 산재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민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방문화(prevention culture)’는 안전보건공단이 2011년 9월부터 ISSA의 예방문화위원회 의장기관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공단 국제협력팀에서 ILO협약 제187호 (Promotional Framework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를 참고하여 처음 사용하게 된 용어입니다. ILO협약 제187호를 보면 제1장(정의)에 ‘a national preventive safety and health culture’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거기서 국가의 모든 수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권이 존중되며, 정부,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정해진 권리와 책임과 의무 체계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보장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예방원칙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3월초 ICOH 회장 Kogi 박사가 ICOH 부회장 및 사무총장과 2015년 서울 ICOH 학술대회개최 준비회의 차 한국에 왔을 때 저녁식사자리에서 두분 부회장중 미국분인 Rogers 교수에게 영어로는 ‘preventive culture’가 맞는지, ‘prevention culture’가 맞는지 묻는 것을 곁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ILO협약 제187호에서는 ‘preventive culture’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prevention culture’가 일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국가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를 한국 측에 물기도 했습니다. 미루어 보건대 국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 학술활동을 선도하는 이들조차도 아직 이 용어에 대해 통일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재예방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안전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던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 두 가지 용어 간에 개념상 혼란을 느끼다가 최근 산업안전실과 국제협력팀 간에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산재예방활동을 함에 있어 ‘안전’에 방점을 찍느냐 ‘예방’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때론 ‘안전문화’ 때론 ‘예방문화’라고 쓸 수 있다고 말이지요. ‘예방문화’건 ‘안전문화’건 예방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부디 이 땅에 뿌리깊게 자리잡아 더 이상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도 산재예방기술연구뿐 아니라 예방문화 확산에 도움되는 연구를 함께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박정선

안전보건 단신

2013년 한국산업위생학회 춘계학술대회 공동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오는 4월 11일과 12일에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한국산업위생학회와 공동으로 『작업환경측정제도의 질(Quality) 제고 방안』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연구원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 취업자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복합노출 근로시간의 다차원 구조 비교 분석』 등 14건의 연구결과를 구연 발표하고, 『한국 근로자에서 직업성 발암물질의 노출』 등 22건의 연구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할 예정이다.

※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은 한국산업위생학회 홈페이지(www.ksoeh.org-학술대회)에서 볼 수 있다.

제2차 산업안전보건 정책포럼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3월 23일(토)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포럼을 실시했다. 이번 포럼은 근로자 건강보호·증진에 대한 문제인식과 접근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연세대학교 강희태 교수가 『작업조건과 문제음주』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난 2월 22(금)에 개최된 1차 포럼에서는 가톨릭대학교 김형렬 교수가 『작업장 폭력에 영향을 주는 작업조건』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연세대학교 최은희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연구원에서는 『교대근무, 노동시간이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 등 근로자 건강보호·증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월1회 포럼을 개최하여 동 주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관심있는 학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 세미나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안전보건연구-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넘어짐 재해예방 세미나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3월 21일(목) 연구원 회의실에서 넘어짐 재해감소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넘어짐 재해예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립방재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과 학계 교수 등이 참석하여 넘어짐 재해예방 연구결과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박재석 연구원이 고령 근로자의 넘어짐 재해통계, 생체역학적 특성, 연령에 따른 운동 특성 등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령근로자 넘어짐 재해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 세미나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안전보건연구-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정책 및 제도개선 포럼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2월 6일(수) 대전 화학물질센터 회의실에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수준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연세대학교 김치년 교수, 창원대학교 하권철 교수 및 송세욱 화학물질센터 소장 등이 참석하여, 2013년도 유해성·위험성 평가 계획, 산업체 혼합물질 GHS 제도 이행지원방안 및 흡입독성 시험동 증축에 따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연구원에서는 매분기마다 화학물질 정책 및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수준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보건 단신

국외 안전인증기관 업무협약 추진 실무회의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3월 7일(목) 안전인증센터 회의실에서 네덜란드 안전인증기관 DEKRA Certification B.V.(이하 DEKRA)와 업무협약 추진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DEKRA측 관계자 Jan de Jonge 등 3명이 방문하여 안전인증센터 실무자와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를 실시하였다. 양측은 본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양해각서 체결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IECEX Scheme에 따른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상호인정,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확인심사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공단과 DEKRA 양 측은 이를 바탕으로 업무협약 관련 문안을 작성하고 향후 제도적 절차를 거쳐 상호인증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봄철 산업재해 특성' 통계자료 배포 - 봄철 오전10시, 체육행사, 뇌심혈관질환 주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정보에 대하여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월별 재해발생형태의 특성을 분석하여 '봄철 산업재해 특성'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내놓았다. 금번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460,424건을 재해유형별 및 월별로 분석한 결과, 체육행사로 인한 사고(37.8%)가 봄철에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뇌혈관계 질환(32.9%)이 봄철에 많이 발생하였고, 진폐(28.8%), 물체의 넘어짐에 의한 사고(27.9%), 무리한 동작에 의한 재해(27.8%)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계기로 향후 시기별 '기상산재경보 시스템' 개발 등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산재예방정책에 기여할 것이다.

※ 세미나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안전보건연구-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고객만족 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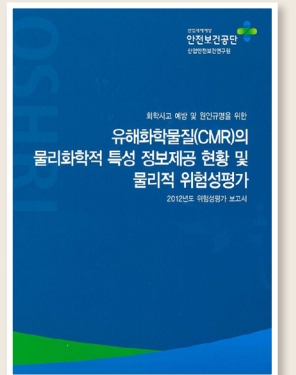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안전인증업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만족 아이디어와 슬로건을 공모·선정하였다. 금번 공모를 통해 고객만족 아이디어 부문에서 16건,

슬로건 부문에서 24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각 부문 최우수작 및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고객만족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신규사업장 예비심사 연계 기술지원추진』 제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고, 슬로건 부문에서는 『고객님의 매우 만족이 우리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고객만족 아이디어는 고객만족 핵심 과제로 정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고객만족 슬로건은 안전인증센터 청사 등 곳곳에 게시하여 고객만족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화재·폭발 위험성 평가보고서 발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산업현장의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사고 예방과 사고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금년에 발간한 보고서는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파티클보드를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목재분진에 의한 폭발사고, 레조르시놀 제조공정의 화재·폭발사고, 폴리스티렌 제조공정의 화재·폭발 사고 등에 대하여 물리화학적 원인분석을 통해 관련 공정의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사이클로헥산 등 유해화학물질 32종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및 물리적 위험성 평가를 통해 해당 물질에 의한 사고예방 방법을 제시했다.



※ 세미나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안전보건연구-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